

사람은 참 삶을 통해 사랑이 된다

| 김흥호 | 이화여대 명예철학 박사

올해부터 김흥호 선생의 기독교 경전 강의가 연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신을 온전히 바치기 위해 무이를 거쳐 참사람이 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사람이 뭉치면 삶이 되고, 삶이 터지면 사랑이 된다. 애벌레가 뭉치면 고치가 되고, 고치가 터지면 나비가 된다. 자아가 통일되면 자연이 되고, 자연이 해탈하면 자유가 된다. 인생은 땅을 헤매다 땅에 빠져 지옥을 경험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천국을 그리워한다. 이때에 땅에서 하늘을 이어주는 높은 동산 위에 우렁찬 나무가 생명나무다. 생명의 푸른 나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봄이 오면 싹이 트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줄기를 굳힌다. 봄이 오면 또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여름이 오면 또 나뭇잎이 대지를 덮고, 가을이 되면 또 열매가 열리고, 겨울이 되면 또 가지를 굳히고, 봄이 오면 또 피어오른다. 자연은 영원한 불이며 태양처럼 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한다. 자연에는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는 참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봄도 아름답고, 가을도 아름답고, 겨울도 아름답다. 자연이 이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에는 내가 없기 때문이다. 자연은 흰빛을 통기며 피어오르는 흰불 같다. 거기에는 아무런 연기가 일지 않는다. 훨훨 타는 흰불에 내가 날 이치가 없다. 그저 빛이요, 열이요, 생명뿐이다. 그러기에 자연은 참되고 무한히 아름답다.

자연의 참됨에는 자아가 없다. 봄은 내 봄도, 네 봄도 아니다. 봄에는 내가 없다. 하늘도 내 하늘도, 네 하늘도 아니다. 하늘에도 내가 없다. 아름다움도 내 아름다움도, 네 아름다움도 아니다. 아름다움에도 내가 없다. 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그렇다. 하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땅도 물도 불도 그렇다. 아름다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참도 좋음도 깨끗함도 그렇다. 자연은 나 없는 무아의 세계다. 자아의 지옥에서 헤매던 사람은 무아의 연옥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으면 대아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기독교는 오래 전부터 무아의 봄을 노래 부르고, 무아의 여름을 기도드리고, 무아의 가을을 말씀으로 보고, 무아의 겨울을 설교로 고백한다. 찬송은 봄노래요, 기도는 여름의 기원이요, 성경은 가을의 말씀이요, 설교는 겨울의 고백이다. 찬송 속에는 내가 없고, 기도 속에도 내가 없고, 성경 속에도 내가 없고, 설교 속에도 내가 없다. 있으면 모두가 있고, 하나님만 계시실 뿐이다. 찬송은 누구의 찬송도 아닌 진심이요, 기도도 누구의 기도도 아닌 진정이요, 성경도 누구의 성경도 아닌 진리요, 설교도 누구의 설교도 아닌 진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 설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 받는 것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 부르는 것이 찬송이다.

사람은 찬송, 기도, 성경, 설교의 춘하추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아가 된다. 무아가 되지 않으면 연옥의 문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옥의 문에는 문짝이 없다. 죄사함을 얻고 무아가 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다. 예배는 소아가, 대아가 되기 위해서 한번 건너가야 하는 무아의 다리다. 이 다리를 건너가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찬송과 기도와 성경과 설교가 거듭되어 왔다.

사람은 살아서 사랑이 된다. 사는 것이 자연이요, 사는 것이 예배다. 그 가운데 희열에 넘치는 찬송이 있고, 눈물의 바다를 이루는 참회가 있고, 진리를 동경하는 맑은 사색이 있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장엄한 고난이 있다. 사람은 일생도 예배요, 일년도 예배요, 하루도 예배요, 한 시간도 예배다. 예배는 무아의 경험이요, 대아로 가는 다리요, 사랑으로 인도하는 삶이다. 사람은 삶을 거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다. 애벌레가 고치를 거쳐 나비가 되고, 자아가 자각을 거쳐 자유가

되고, 소아가 무아를 거쳐 대아가 되듯이 사람은 예배를 거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나무가 자라서 낱기가 되듯 사람은 참삶을 통해서 사랑이 된다. 사랑은 곧 하나님이다. 참삶은 그리스도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 참삶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들이 된다. 더러운 물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되듯이 사람은 삶을 통해 사랑이 된다.

변화

신교에서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고, 구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희랍정교에서는 1월 6일로 정해서 지킨다. 예수님의 일생은 크리스마스, 십자가, 부활, 승천의 순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예수의 재림이다.

초대교회에서 맨 처음 기다린 것은 예수의 재림이었다. 신앙적으로 보면 재림신앙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 곧 오신다, 그러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기다려라. 이것이 기원 1세기의 이야기이다. 그때의 신앙은 재림신앙이었다. 재림신앙이 자꾸 깊어져서 뿌리가 어디 있나 찾아 가다가 부딪친 것이 부활신앙이다. 기원 2세기는 부활신앙이 교회를 차지했다. 그런데 백년간 부활신앙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다 보니 십자가의 신앙이 나타났다. 기원 3세기는 십자가의 신앙이다. 그 후 십자가 신앙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니 크리스마스의 신앙이 나타났다. 기원 4세기에 이르러 크리스마스가 제정되고 깊어지기 시작했다.

예수의 생애로 말하면 성탄, 십자가, 부활, 승천의 순이지만,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재림, 부활, 십자가, 성탄의 순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변화〉로 정했다.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1절 말씀이다. 하나님께 드리진 삶인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가져야 하나, 그것이 2절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는 말씀이다. 그 속에는 세 가지 말씀이 있다. 1. 본받는다, 2. 변화한다, 3.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다시 말하면 1절은 크리스마스, 2절은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의 뜻 : 십자가’, ‘변화 : 부활’, ‘본받는다 : 재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기독교의 삶이란 것은, 예를 들면 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길이라면 길은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가야 되고, 그리고는 길이 되어야 된다. 진리라 하면 진리를 찾다가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살다가 진리가 되는 것이다. 생명도 마찬가지이다. 생명을 찾다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다가 생명이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되는 것’이다.

변화의 ‘화(化)’자는 될 ‘화’자이다. 왜 되어야 되나. 그래야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쌀이면 쌀이 되어야, 사람이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있지, 되지 못한 것들은 바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1절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이다. 되어야 바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는 계단이 있다. 첫째 계단이 본받는 계단이고, 둘째 계단이 변화하는 계단이고, 셋째 계단이 분별해서 행하는 계단이고, 넷째 계단이 되는 계단이다. 이것이 재림에서 부활로, 십자가로, 다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은 재림의 복음이다. 마가복음은 부활

학생들이 가끔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는데 그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
“선생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인생은 선생이다.”라고 대답한다.
사람들이 길을 못 찾아 헤맬 때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선생이다.

의 복음이요, 누가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크리스마스의 복음이다.

예수께서는 크리스마스가 시작이지만,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맨 끝이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가 1월 6일이 되어야 하느냐, 12월 25일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를 위주로 하면 1월 6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를 위주로 하면 12월 25일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크리스마스가 맨 끝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돼서 무얼 하나.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다.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세 단계를 지나서 인격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가끔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는데 그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 “선생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인생은 선생이다.”라고 대답한다. 선생이란 무엇인가? 선생은 인생의 본이다. 사람들이 길을 못 찾아 헤맬 때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선생이다. 그런데 진짜 선생은 예수이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배우라고 권한다. 인생은 본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모른다. 재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받을 선생을 만난다는 것이다. 내가 일생에서 제일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선생을 가져 봤다는 것이다. 특히 예수께서 인도하는 선생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방향할 때 선생님이 내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에게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둘째는 변화이다. 부활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다고 해도 좋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좋다. 삶이 뒤집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내가 뒤집히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건 다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직접 만나야 한다. 직접 만나고 나면, 그것을 성령을 통해 성신을 받는다고 해도 좋다. 그 삶 속에 굉장한 변화가 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대학생들이 성경말씀을 배우는 ‘본’의 세계를 가졌고, 또 청장년부들이 독서회를 해서 자기가 실제로 그 진리를 깨달아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다. 그게 참 중요하다.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지, 처음에는 물론 선생님을 쫓아가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혼자 가는 때가 있어야 되고, 내가 직접 말씀에 부딪쳐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에 직접 부딪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직접 보기 전에는 내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가 변화이다. 1학년이 본을 따라가는 거라면 2학년은 변화이다. 이 둘째 계단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계단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하는 것이다. 각 대학에서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 낙망에 빠진 사람, 인생에 대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나, 그것이 일이다.

일을 해야 된다.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일하지 않으면 되지를 못한다.
결론은 거기에 있다. 자꾸 일해야 마지막에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자꾸 일하는 것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무엇이 되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모자라는 게 찬양대이다.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주축이라 방학하면 다 가고, 개학하면 나오고 이렇게 있었다, 없었다 한다. 내가 대신교회에 있었을 때는 “우리끼리 하자”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찬양대 대원이 되었었다. 난 도레미파도 모르면서 되었다. 그랬더니 여러 선생님이 자기도 한다고 나서고 또 몇이 더 나섰다. 그러더니 날더러 그만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빠져나오고 지금은 여러 선생과 몇이서 주축이 되어 2~3년 쯤 계속해 내려오는데 이제는 있었다, 없었다 하지를 않는다. 쯤 계속하고 학생들이 오면 또 가담이 되고, 학생들이 가면 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나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일한다. 방학했다고 하지만 나는 하루 4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다. 20일부터 31일까지 하는데, 요전 크리스마스 전날은 오후에 2시간 더 했다. 사회교육 한다는데 또 가서 일을 했다. 그래서 6시간을 했다. 그러니까 강의도 해야지, 또 교회도 맡아야지, 대학 채플도 해야지, 『사색』도 내야지, 카운슬링도 해야지,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일을 해야 된다.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일하지 않으면 되지를 못한다. 결론은 거기에 있다. 자꾸 일해야 마지막에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자꾸 일하는 것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무엇이 되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싹이 터서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되는 것처럼 사람은 선생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다. 돼서 무엇 하자는 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계에서든 네 계단이 확실히 가도록
그것을 나는 여러분들께 바라고 믿는다. (끝) 

- 이 글은 '사람 삶 사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
성함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
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현재 김흥호 선생은 매주 일
요일 이화여대 교회에서 성경과 동양의 교전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사람 삶 사랑

김흥호 사상전집 기독교 설교집 1

김흥호 저 | 사색 刊 | 7,000원



김흥호 사상전집 기독교 설교집 1 『사람 삶 사랑』은 저자의 기독교에 대한 깊은 메시지는 이 시
대에 오히려 더욱 새롭게 부각된다. 저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쉽게 풀어 간다. 설교라고 하
지만 기독교인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삶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
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절묘하게 풀이하여 독자들을 어느덧 진실의 세계로 들어서게 한다.